

2교시

1.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것을 漢字로 쓰시오. [2점]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목표	○ (㉠)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 (㉡)의 개념과 범위,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등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토론함.
수업 자료	臣崔溥 自濟州漂流 泊甌東 過越南 經燕北 以今六月十四日 到青坡驛 敬奉傳旨 一行日錄 撰集以進 - 崔溥 -(『漂海錄』)
전개	○ 수업 자료 소개 및 상호 이해와 교류 - 조선시대 문신 崔溥는 제주도에 관원으로 부임했는데, 부친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중국 浙江省에 도착하였고, 반년 뒤에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이후 그는 왕명에 따라, '바다를 표류한 기록'이라는 제목을 지닌 (㉠)을/를 썼다. - 중국에 도착했을 당시 중국 관원은 崔溥 일행이 탄 배를 해안 지대에 출몰하는 왜선인 줄 잘못 알고 나포하여 처형하려고 하였다. 이때 崔溥는 조선의 연혁과 도읍지, 산천과 역사 등에 대해 글로 써서 설명하였다. 이에 관원은 의심을 풀고 음식물을 보내 주었다고 한다.

***모의고사 5회**

5. 한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자료>		
어휘	한국의 뜻	중국의 뜻
看病	간병하다	진찰하다/치료하다
飯店	중국음식점	호텔
書房	남편	서재
어휘	한국의 뜻	일본의 뜻
親分	친밀함	그룹의 우두머리
大丈夫	건장하고 씩씩한 남자	걱정 없음/괜찮음
外人	관계없는 사람	외국사람

<p>한 교사: 이 자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한자 어휘가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p> <p>반 교사: 아주 흥미로운 자료네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한자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을 모둠별로 토의.토론하여 발표하도록 하면 좋겠네요.</p>

(다)

○ 子夏曰 (㉠) 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論語』-

4.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卽其文章也 苟能因其文而究其理 精以察之 優而游之 理之與文 融會於吾之胸中 則其發而爲言語詞賦 自不期於工而工矣 自古 以文章 鳴於時而傳後者 如斯而已 人徒見夫㉠今之所謂經術者 不過句讀訓誥之習耳 ㉡今之所謂文章者 不過雕篆組織之巧耳 句讀訓誥 奚以議夫黼黻經緯之文 雕篆組織 豈能與乎性理道德之學 於是乎遂岐經術文章爲二致 而疑其不相爲用 嗚呼 其見亦淺矣 - 金宗直, 尹先生祥詩集序 -

*『조선시대 산문 읽기』 30쪽.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卽其文章也 苟能因其文 而究其理 精以察之 優而游之 理之與文 融會於吾之胸中 則其發而爲言語詞賦 自不期於工而工矣 自古以文章鳴於時 而傳後者 如斯而已 人徒見夫今之所謂經術者 不過句讀訓誥之習耳 今之所謂文章者 不過雕篆組織之巧耳 句讀訓誥 奚以議夫黼黻經緯之文 雕篆組織 豈能與乎性理道德之學 於是乎遂岐經術文章爲二致 而疑其不相爲用 嗚呼 其見亦淺矣

5.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의 ‘한자와 어휘’를 지도하기 위해 예비 교사와 한문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4점]

예비 교사 : 품사에 관한 연구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유의 사항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문 교사 : 한문의 품사는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인 활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하나의 한자가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로 쓰이기도 하고,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허사로도 쓰여요.
예비 교사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한문 교사 : ㉠ 하나의 한자가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 하나의 한자가 문장에서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요.
예비 교사 :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업 자료>

- ① 日就月將
- ② 時已徙矣 而法不徙 - 『呂氏春秋』 -
- ③ 王擇吉日 册位太子 - 『三國遺事』 -
- ④ 夫差 而忘越王之殺而父乎 - 『左傳』 -
- 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 『老子』 -

*모의고사3회

2. 밑줄 친 ㉠, ㉡의 품사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2점]

○ 功者難成㉠而易敗 時者難得而易失 時乎時 不再來 -『史記』
○ 余弟不欲往 ㉡而子召之 余弟死 而子來 是而子殺余之弟也 -『春秋左氏傳』

6.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목표	○ 한시의 (㉠)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수업 자료	十五越溪女 羞人無語別 歸來掩重門 泣向梨花月 - 林悌, 無語別 -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의 시체.압운.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의 시체는 크게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뉘며, 한구의 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 압운법은 한시에서 특정한 句의 끝자리를 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 대우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句가 내용상 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한시의 시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의 시체.압운.대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d>구분</td><td>내 용</td></tr> <tr><td>시체</td><td>오언절구</td></tr> <tr><td>운자</td><td>(㉠)</td></tr> <tr><td>대우</td><td>없음.</td></tr> </table> ○ 한시의 시상 전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d>단계</td><td>시상 전개 과정</td></tr> <tr><td>기구</td><td>열다섯 살 아리따운 소녀를 등장시켜 시상을 불러일으킴.</td></tr> <tr><td>승구</td><td>(㉡) 장면을 묘사하여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킴.</td></tr> <tr><td>전구</td><td>(㉢) 행위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킴.</td></tr> <tr><td>결구</td><td>배꽃에 걸린 달을 보며 눈물짓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td></tr> </table> 	구분	내 용	시체	오언절구	운자	(㉠)	대우	없음.	단계	시상 전개 과정	기구	열다섯 살 아리따운 소녀를 등장시켜 시상을 불러일으킴.	승구	(㉡) 장면을 묘사하여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킴.	전구	(㉢) 행위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킴.	결구	배꽃에 걸린 달을 보며 눈물짓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구분	내 용																		
시체	오언절구																		
운자	(㉠)																		
대우	없음.																		
단계	시상 전개 과정																		
기구	열다섯 살 아리따운 소녀를 등장시켜 시상을 불러일으킴.																		
승구	(㉡) 장면을 묘사하여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킴.																		
전구	(㉢) 행위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킴.																		
결구	배꽃에 걸린 달을 보며 눈물짓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것을 ‘한문의 독해’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漢字를 ‘수업 자료’와 ‘전개’를 활용하여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 자료'와 '전개'를 활용하여 순서대로 서술할 것.

*모의고사4회

3. 다음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문 교사의 연구노트이다. ㉠, ㉡, ㉢, ㉣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시오. [4점]

학습 목표: (㉠)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학습 제재: 國破山河異昔時 獨留江月幾盈虧 落花巖上花猶在 風雨當年不盡吹 -洪春卿, 「白馬江」-
성취기준해설: 한시의 시체는 크게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뉘며, 압운법과 대우법이 있으며, 기승전결로 시상이 전개 된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그림이나 만화를 그려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라는 학습 방법을 사용하되, 그림이나 만화 자체의 완성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시구 풀이: -盈虧: 차고 기울다. -當年: (㉢)
감상하기: 이 시에서 세월의 흐름을 암시하며 자연과 대비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시구는 (㉣)이며, 이 시는 낙화암에서 백마강에 드리운 달을 보며 망해 버린 백제를 회고하고 있다.

*『조선의 한시를 읽다』 73쪽

38. 「無語別」 林悌

十五越溪女 열다섯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羞人無語別 남부끄러워 말없이 이별했네

歸來掩重門 돌아와 겹문을 닫아걸고

泣向梨花月 배꽃 같은 달을 보며 우네

<주석>【越溪(월계)】월나라 미인 西施가 빨래했다는 곳【掩】닫다 罅【重門(중문)】겹문이 설치된 문

<감상> 이 시는 임제의 대표작으로, 王士禎이 『池北偶談』에 수록하여 중국에까지 알려진 시이다.

열다섯 살 된 아리따운 아가씨가 길을 가다 마음에 두었던 사내를 만났지만, 남들 눈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혹시라도 남이 알까봐 겹문을 닫아걸고 붉게 상기된 얼굴을 가리려한다. 한 마디 말도 건네지 못한 아쉬움과 未練을 하소연할 곳은 달밖에 없어 배꽃 같은 달을 향해 눈물짓고 있다.

7. 다음은 교사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한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수업 계획>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다.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지도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을 지도할 때에는 단순히 짜임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고 한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 문장의 구조를 지도할 때에는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고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한다. ○ 글의 풀이를 지도할 때에는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를 분석하고 우리말 어순과 비교하여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한다.
수업 자료	雖小技 有所忘 然後能成 而況㉠大道乎 … (中略) …李澄幼登樓而習畫 ㉡家失其所在 三日乃得 父怒而答之 泣引淚而成鳥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 ㉢鶴山守通國之善歌者也 入山肆 每一關 拾沙投屐 滿屐乃歸 嘗遇盜將殺之 倚風而歌 ㉣群盜莫不感激泣下者 此所謂死生不入於心 - 朴趾源, 炯言桃筆帖序 -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줄 친 ㉠의 단어의 짜임을 쓸 것. ○ 밑줄 친 ㉡과 ㉢의 문장의 구조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을 어순에 맞추어 바르게 풀이할 것.
--

*선행모의고사12회

6.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인성'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수업 계획>

구분	내 용
단원명	더불어 사는 사회
교과역량	의사소통 능력, 인성 역량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
수업자료	崔興孝通國之善書者也 嘗赴舉 書卷 得一字 類王羲之 坐視終日 忍不能捨 懷卷而歸 是可謂得失不存於心耳 李澄幼登樓而習畫 家失其所在 三日乃得 父怒而答之 泣引淚而成鳥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 -『燕巖集』-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이하기 - 단어의 짜임에 유의한다. *㉡赴舉: '과거에 나아감'으로 '술보' 관계 *懷卷: '마음과 책'으로 '병렬' 관계 - 문장의 구조에 유의한다. *㉢李澄幼登樓: 주술보 구조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 주술목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최흥효와 이징에 대한 논설문 쓰기 -신문의 논설문처럼 논설문을 작성함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역량'과 '학습 활동'에 근거하여 괄호 안의 ㉑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밑줄 친 ㉒, ㉓에서 오류를 찾아 바로잡을 것. ○ 밑줄 친 ㉔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을 쓸 것.
--	---

*선행모의고사11회

6. 다음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문 수업을 위해 김 교사가 선택한 수업 및 평가 계획이다. ㉑에 들어갈 내용, ㉒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 평가지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4점]

수업 및 평가 계획

교과역량: 의사소통 능력, 인성 역량
성취기준 1.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2. 문장의 구조와 실사·허사를 구별한다. 3. (㉑)
<자료1> 활동 제재 鶴山守 通國之善歌者也 入山肄 每一闕 拾沙投展 滿屐乃歸 嘗遇盜 將殺之 倚風而歌 群盜莫不感激泣下者 此所謂死生不入於心 -朴趾源, 『燕巖集』-
평가지 1. (가)'拾沙'과 '倚風'의 단어의 짜임을 각각 쓰시오. (,) 2. (나)'將殺之'에서 '之'의 품사를 쓰시오. ()
<자료2> 협의회 대화록 김 교사: 조선 시대에 살았던 학산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사: 선인들의 공동체 삶에 관한 내용이군요. 교과역량에 근거하여 성취기준 (㉑)을 통해 生死에 대한 선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현재적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 교사: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 교사: ㉒ 학문에 몰두하여 성공한 영화를 보고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 교사: 감사합니다. 협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좋은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 밑줄 친 ㉑, ㉒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각각 서술하고, 밑줄 친 ㉓에 해당하는 것 2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4점]

彼以士大夫家郎君 年方青 血氣未定 只知蜂蝶之貪花 不顧風露之可憂 能幾日而病不作耶 病則必不起 是非我殺之而我殺之也 雖人不知 ㉠必有陰報 且兒身不過一中路家處子也 非有傾城絕世之色沈魚羞花之容 而郎君見鴟爲鷹 其致誠於我 若是其勤 然而不從郎君者 ㉡天必厭之 福必不及於兒矣 兒之意決矣 願父母勿以憂 噫 兒親老而無兄弟 嫁而得一贅壻 生而盡其養 死而奉其祀 ㉢兒之願足矣 而事忽至此 此天也 言之何益 其父母默然無可言 生亦無可言者 仍與女同寢 渴仰之餘 其喜可知 - 李鈺, 沈生傳 -

*『조선의 산문을 읽다』 276-278쪽

彼以士大夫家郎君 年方青 血氣未定 只知蜂蝶之貪花 不顧風露之可憂 能幾日而病不作耶 病則必不起 是非我殺之而我殺之也 雖人不知 必有陰報 且兒身 不過一中路家處子也 非有傾城絕世之色 沈魚羞花之容 而郎君見鴟爲鷹 其致誠於我 若是其勤 然而不從郎君者 天必厭之 福必不及於兒矣 兒之意決矣 願父母勿以爲憂 噫 兒親老而無兄弟 嫁而得一贅壻 生而盡其養 死而奉其祀 兒之願足矣 而事忽至此 此天也 言之何益 其父母 默然無可言 生亦無可言者 仍與女同寢 渴仰之餘 其喜可知

12. 밑줄 친 ㉠~㉢을 번역하시오. [4점]

今得東亭先生陶詩後序曰 ㉠憔悴於飢寒之苦 而有悠然之樂 沈冥於麴蘖之昏 而有超然之節 伏而讀之 不覺嘆息曰 噫 此所以爲淵明也 雖去千載之遠 如聞其聲咳而接見其容儀也 且其憔悴於飢寒之苦 沈冥於麴蘖之昏者 迹也外也 有悠然之樂 超然之節者 心也內也 ㉡在外者易見 在內者難知 宜後學未能窺 其藩籬也 向者 韓杜之言 特託而言之耳 先生曰 不然也 淵明生於衰叔之世 知其時之不可爲 高蹈遠引 養真衡茅之下 塵視軒冕 銖看萬鍾 雖衣食不給 而悠然樂以忘其憂 及乎宗國既滅 世代遷易 一時之輩 相招仕進 若吾淵明則不然 ㉢拳拳本朝之心 如青天白日 不事二姓 隱於詩酒之中 其高風峻節 凜乎秋霜之烈 不足比也 - 鄭道傳, 讀東亭陶詩後序 -

*강독자료

鄭道傳(1342-1398): 「家難」, 「鄭沈傳」, 「無說山人克復樓記 後說」, 「謝魑魅文 并序」, 「君子亭記」, 「河相國春亭詩序」, 「讀東亭陶詩後序」, 「到南陽上密直司啓」

今得東亭先生陶詩後序 曰憔悴於飢寒之苦 而有悠然之樂 沈冥於麴蘖之昏 而有超然之節 伏以讀之 不覺歎息曰 噫 此所以爲淵明也 雖去千載之遠 如聞其聲咳而接見其容儀也 且其憔悴於飢寒之苦 沈冥於麴蘖之昏者 迹也外也 有悠然之樂 超然之節者 心也內也 在外者易見 在內者難知 宜後學未能窺其藩籬也 向者韓杜之言 特託而言之耳 先生曰 不然也 淵明生於衰叔之世 知其時之不可爲 高蹈遠引 養真衡茅之下 塵視軒冕 銖看萬鍾 雖衣食不給 而悠然樂以忘其憂 及乎宗國既滅 世代遷易 一時之輩相招仕進 若吾淵明則不然 拳拳本朝之心 如青天白日 不事二姓 隱於詩酒之中 其高風峻節 凜乎秋霜之烈 不足比也

3교시

1.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의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들의 대화와 수업 자료들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성어를 <수업 자료 1>과 <수업 자료 2>를 참고하여 漢字로 쓰시오. [2점]

김 교사 :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은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박 교사 :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김 교사 : (㉠)은/는 제시된 단어와 관련된 유의 또는 반의의 뜻을 갖는 단어를 조사하여 도식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지요.
박 교사 : 네. 성어 학습에도 활용하면 성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고 어휘력도 신장시킬 수 있어요.
김 교사 : 감사합니다.

<수업 자료 1>

一切營生細務 置之度外 飢亦讀 寒亦讀 憂患也讀 疾病也讀 蓋自弱冠至(㉡)之年 無一日不讀書之日 - 李晚燾, 『響山集』 -(「族兄啓功郎繕工監假監役崑后公家狀」)

<수업 자료 2>

不惑, 強仕: 40세	← <나이> →	六順, (㉡):60세	
	↓		
	古稀, 稀壽: 70세		

*선행모의고사13회

1.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연구수업 준비를 위한 대화이다. ㉠에 들어갈 성어를 漢字로 쓰고, ㉡에 들어갈 활동을 쓰시오.[2점]

교육실습생: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를 학습하는 연구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문 교사: 네, 어떤 내용의 수업인가요?
교육실습생: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中庸章句』에,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 反求諸其身”라 하였는데, 여기서 ‘과녁의 한가운데가 되는 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말인 (㉡)이 유래되었다.

한문 교사: 잘 선택했네요. 교수·학습으로 (㉡)를 통해서, 유의어나 반의어를 조사하게 하여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 글쓴이가 말한 밑줄 친 ㉠의 장점과 단점을 (가)에서 찾아 쓰고, 밑줄 친 ㉡의 문장 특징을 (나)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4점]

(가) 尤翁亟推⊙谿谷文章 謂爲東方第一 嘗語靜觀齋云 谿谷去歐蘇不遠 大明三百年 未有其比 陽明雖誇張震耀 而其實不如 此論竊恐未然 谿谷文 典雅通暢 辭理俱備 體裁不苟 在吾東固當爲大家 然其氣調才力 實不及古人

(나) 明人如空同弇州一派 固非韓歐正脈 至於遜志陽明遵巖荆 川數大家 皆深於經術 優於理致 宏博精深 高明峻潔 皆非谿谷所能及 陽明誠有誇張處 然其天才自高 長於操縱 非徒爲張皇者也 尤翁實不多見明文 概謂明人皆僞學古文 不知自有⊙遵巖荆川一派 谿谷正在其範圍中耳 - 金昌協, 『農巖集』 -

*강독자료 金昌協(1651~1708) 「鑿氷行」, 『農巖雜識』, [芝村雜記 李喜朝], 「黃生柱河哀辭并序」, 「息菴集序」, 「送宋道實宰金化序」

尤翁亟推谿谷文章 謂爲東方第一 嘗語靜觀齋云 谿谷去歐蘇不遠 大明三百年 未有其比 陽明雖誇張震耀 而其實不如此 論竊恐未然 谿谷文 典雅通暢 辭理俱備 體裁不苟 在吾東固當爲大家 然其氣調才力 實不及古人 明人如空同, 弇州一派 固非韓歐正脈 至於遜志, 陽明, 遵巖, 荆川數大家 皆深於經術 優於理致 宏博精深 高明峻潔 皆非谿谷所能及 陽明誠有誇張處 然其天才自高 長於操縱 非徒爲張皇者也 尤翁實不多見明文 槩謂明人皆僞學古文 不知自有遵巖, 荆川一派 谿谷正在其範圍中耳 - 金昌協 『農巖雜識』

7. 밑줄 친 ㉠을 번역하고, 밑줄 친 ㉠의 이유를 (가)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밑줄 친 ㉡, ㉢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4점]

(가) 陳代曰 不見諸侯 宜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則以霸 且志曰 枉尺而直尋 宜若可爲也 孟子曰 昔 齊景公田⊙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孔子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 如不待其招而往 何哉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

(나) 昔者 趙簡子使王良與嬖奚乘 ㉠終日而不獲一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賤工也 或以告王良 良曰 請復之 彊而後可 ㉡一朝而獲十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 簡子曰 我使掌與女乘 謂王良 良不可 曰 吾爲之範我馳驅 終日不獲一爲之詭遇 一朝而獲十 - 『孟子』 -

*경서강독

[本文]陳代曰 不見諸侯 宜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則以霸 且志曰 ㉠枉尺而直尋 宜若可爲也 孟子曰 昔 齊景公田 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孔子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 如不待其招而往 何哉 -『孟子』 「滕文公 下」

[註釋]小 謂小節也 枉 屈也 直 伸也 八尺曰尋 枉尺直尋 猶屈己一見諸侯而可以致王霸 所屈者小 所伸者大也 招大夫以旌 招虞人以皮冠 元 首也 志士固窮 常念死無棺槨 棄溝壑而不恨 勇士輕生 常念戰鬪而死 喪其首而不顧也 此二句 乃孔子歎美虞人之言 夫虞人 招之不以其物 尚守死而不往 況君子豈可不待其招而自往見之邪 此以上 告之以不可往見之意 -『孟子』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 昔者 趙簡子使王良 與嬖奚乘 終日而不獲一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賤工也 或以告王良 良曰 請復之 彊而後可 一朝而獲十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 簡子曰 我使掌與女乘 謂王良 良不可 曰 吾爲之範我馳驅

終日不獲一 爲之詭遇 一朝而獲十 詩云 不失其馳 舍矢如破 我不貫與小人乘 請辭 御者且羞與射者比 比而得禽獸 雖若丘陵 弗爲也 如枉道而從彼 何也 且子過矣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 -『孟子』「滕文公 下」集註』

11. 밑줄 친 ㉠~㉣을 번역하시오. [4점]

孝宗郎遊南山鮑石亭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郎問其故 曰 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 相號而哭 問同里 曰 ㉠此女家貧 乞啜而反哺 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寄置大家服役 日暮 藁米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糠粃 心和且平 近日之香秬 膈肝若刺 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己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郎聞之潛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 亦送衣袴一襲 郎之千徒 斂租一千石遺之 ㉢事達宸聰 時眞聖王賜穀五百石 并宅一廬 遣卒徒衛其家 以倣劫掠 旌其坊 爲孝養之里 後拾其家爲寺 名兩尊寺 - 一然,『三國遺事』 -

*삼국-조선초기 강독 『三國遺事』: 「貧女養母」, 「延烏郎 細烏女」, 「射琴匣」, 「桃花女 鼻荊郎」, 「善德王知幾三事」, 「興德王 鸚鵡」, 「四十八景文大王」, 「努胎夫得 怛怛朴朴」, 「眞定師 孝善雙美」, 「萬波息笛」, 「金現感虎」

孝宗郎遊南山鮑石亭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郎問其故 曰 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 相號而哭 問同里 曰 此女家貧 乞啜而反哺 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寄置大家服役 日暮 藁米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糠粃 心和且平 近日之香秬 膈肝若刺 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己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郎聞之潛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 亦送衣袴一襲 郎之千徒 斂租一千石遺之 事達宸聰 時眞聖王賜穀五百石 并宅一廬 遣卒徒 衛其家 以倣劫掠 旌其坊 爲孝養之里 後拾其家爲寺 名兩尊寺